

동국대-가톨릭대

英 QS세계대학평가 40단계 상승

교육여건 개선 대학 순위 올라

동국대

국내 13위로 역대 최고순위 기록

가톨릭대

국내 15위... 교원 당 학생 수 2위



동국대는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인 QS의 2018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13위를 기록했다./동국대



가톨릭대는 2018 QS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15위를 차지했다./가톨릭대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의 올해 세계대학평가에서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 국내 대학들의 순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총장 한태식)는 2018 QS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순위 432위, 국내 13위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동국대는 지난 2013년 QS세계대학평가에 첫 참여한 이후 매년 순위가 상승했고, 올해는 역대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무려 39계단이나 상승했다. 동국대는 특히 교원당 학생 수, 외국인 학생 수에서 각각 24계단, 51계단 올랐다. 연구경쟁력이 높은 교원을 초빙하고, 우수 유학생을 집중 유치한 것이 순위 상승을 이끈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수 동국대 기획부총장은 “연구역량이 우수한 교원들을 지속 초빙해 교수당 학생 수 지표를 개선했다”며 “또 교수 논문 피인용 수를 올리기 위해 교수들에게 여러가지 동기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다. 이어 “영화영상 등 유학생 중점학과 6개를 지정해 유학생들을 집중 유치한 것도 외국인 학생 비율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가톨릭대도 2018 QS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15위에 올랐다. 가톨릭대는 특히 교원당 학생 수에서 국내 2위에 올라 전체 순위를 끌어 올렸다.

가톨릭대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대비 국내 순위는 16위에서 15위로 1계단 상승했고, 세계 순위에서는 지난해 501위에서 올해 456위로 45계단이나 상승했다.

가톨릭대는 특히 이번 평가에서 수업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인 교원당 학생 수에서 국내 2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QS세계대학평가는 전 세계 85개국 4848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평가 지표로는 ▲학계 평판(40%)이 가장 높고, ▲교원당 학생 수(20%)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20%) ▲졸업생 평판(10%) ▲외국인 교수 비율(5%) ▲외국인 학생 비율(5%) 등 6가지 지표가 반영됐다.

올해 QS 세계대학평가 1위는 매사추세츠공대(MIT), 2위는 스탠퍼드대, 3위는 하버드대, 4위 캘리포니아공대가 차지해 1~4위를 미국 대학이 차지했다. 국내 대학 순위만 보면,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지스트, 이화여대, 한국외대, 중앙대, 동국대, 서강대, 가톨릭대 등의 순이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이기우, 전문대교협회장에 4회째 연임 성공

(인천재능대 총장)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앞장설 것”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이 지난 8일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임시총회에서 제18대 회장에 선출됐다. 이 회장은 이번 연임에 성공함에 따라 14~15대, 17대에 이어 4번째 회장을 맡게 됐다.

이 총장은 당선 수락 연설에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위기의 전문대학을 지켜내겠다”며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제대로 대우받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하는 회장, 힘있는 협의회”를 기치로 내건 이 총장은 이날 정경발표에서 전문대 당면 문제를 풀어낼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총장은 우선 전문대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입학금 폐지에 따른 4가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인천재능대학교

후속 합의사항을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대학 졸업학점을 현행 80학점에서 70학점으로 축소하고, 등록금의 법적 인상을 한도 내의 인상을 통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고등직업교육 영역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고등직업교육육성법’을 제정

하고, ‘범정부 차원의 직업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직업교육이 존중받는 능력중심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아울러 입학자원 확보를 위해 전문대학 중심의 대입제도 확립, 40세 이상의 고졸 성인학습자의 정원의 입학제도 도입, 수업연한 다양화 실현, 남북관계 개선 시 북반 주민의 직업교육과 새 일자리 창출 등을 전문대학이 주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총장은 공약 실천을 위해 협의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협의회 내에 ‘전문대학 상생협력본부’를 설치해 개별대학의 고충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장은 1967년 부산고를 졸업하고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차관을 지낸 뒤 2006년부터 인천재능대 총장을 맡고 있다. /한용수 기자

한국자동차제작자협

아주자동차대학에 실습용 VT車 기증

아주자동차대학(총장직무대행 오태일)은 지난 7일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회장 박상권)로부터 실습용 VT(마이트) 차량 1대를 기증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기증받은 차량의 신차가격은 4500여만원이다.

아주자동차대는 기증 받은 차량을 재학생의 특장차 정비와 튜닝 관련 실험실습 기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가 지난 7일 아주자동차대학에 실습용 VT(마이트) 차량 1대를 기증했다. 아주자동차대는 차량을 재학생의 특장차 정비와 튜닝 관련 실험실습 기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주자동차대학교

“민주 진보 단일후보는 송주명”

(경기도 교육감 후보)

진보인사들 잇따라 지지 선언

노혜경 전 노사모회장

정진후 전 국회의원 등

“이재정 후보와 차별성 부각”



송주명 경기도교육감 후보. /후보 캠프

지난 4월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된 송주명 경기도교육감 후보(한신대 교수)에 대한 진보성향 인사들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에 불참한 진보 성향 이재정 후보(현 교육감)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0일 송 후보 캠프에 따르면, 노혜경 전 노사모회장, 박진 촛불집회 사회자, 박래군 416연대공동대표 등 민주진보 인사들이 송 후보 지지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정진후 전 국회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 후보 지지선언에 동참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주명 경기 교육감 후보 힘내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유세현 장을 다녀와서 아쉬움이 많아 말을 하고 싶다”며 “송주명 후보가 시민사회가 선택한 민주진보후보임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이재정 후보가 민주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놓고 “4년 전 그를 선택했던 시민사회가 왜 그럴 버렸는지, 4년 전과 지금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내용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지 않자보니 후보로 나선 현 교육감이 지금도 4년 전의 민주진보 후보로 ‘위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주명 후보는 올해 초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주관한 민주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라며 “당시 교육감인 이재정 후보는 후보 경선에 불참했으나 각종 방송 등에서 진보교육감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8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경기교육혁신연대)는 송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단일화에는 구희현 친환경학교 급식 경기도노동본부 상임대표, 박창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 지부 초대 지부장, 이상대 신한산대 부교수, 정진후 전 정의당 원내대표 등 5명이 참여했다.

경기도교육감 후보로는 이재정(현 교육감), 송주명(한신대 교수), 배종수(서울교대 명예교수) 등 진보성향 후보 3명과 임해규(전 경기연구원장), 김현복(전 도의원) 후보 등 보수성향 후보 2명이 출마했다. /한용수 기자



‘2019 대입, 서서히 막으려 정보전쟁’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진선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종로학원 2019 대입예측 입시설명회에서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관계자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2018 우수학술도서 285종 선정

전국 대학도서관에 13만권 보급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이 2018년 우수학술도서 285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선정된 도서에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집권 당시 한미 외교 문서를 통해 1976년~1979년 당시 한국과 미국, 북한의 관계를 다룬 ‘카터 시대의 남북한: 동맹의 위기와 민족의 갈등’(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등 북한 관련 도서도 포함

돼 눈길을 끈다. 이외에 ‘북한개발협력의 이해: 이론과 실제’(손혁상 외, 으뜸), ‘중국 일상속 북한 이미지’(박명규 외 편, 진인진), ‘남북한 역사소설 연구’(문홍술, 역락) 등 북한 관련 도서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된 도서 13만권을 구입해 올해 11월까지 전국 대학 도서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선정된 도서는 인문학 67종, 사회과학 99종, 한국학 41종, 자연과학 28종이다. /한용수 기자